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1. 청계천 복원사업 패널조사
2.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
3. 청계천 복원사업의 향후과제

1. 청계천 복원사업 패널조사

○ 조사개요

- 청계천 패널조사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실시됨.

○ 1차 패널조사

- 2003년 12월에 청계천 주변 사업체 1,000개와 청계천 주변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함.
- 청계천 복원사업 시행에 따른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의 영업 관련 상황변화와 상인들의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여론동향을 조사함.

○ 2차 패널조사

-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계천 주변지역 1,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실시함.
-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에 따른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의 영업 관련 상황과 상인들의 태도변화 등 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변화 현황을 조사함.

○ 3차 패널조사

- 2005년 1월에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509개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함.
- 2005년 10월 준공을 앞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영업환경 변화 및 태도, 복원공사에 따른 영향, 교통 및 환경부문의 개선도 등을 평가함.

○ 4차 패널조사

- 2005년 11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함.
- 서울시의 새 명소로 자리 잡은 청계천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용행태, 만족도, 복원 이후 인식변화 등 전반적인 시민의식에 대해 조사함.

<표 1> 청계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관련 패널조사 비교

구 분	제1차 패널조사		제2차 패널조사	제3차 패널조사	제4차 패널조사
1) 모집단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청계천 주변지역 지역주민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청계천 주변지역 사업체	2005년 11월 현재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2) 표본크기	1,000개 사업체	500명	1,000개 사업체	509개 사업체	1,000명
3) 조사지역	청계천 주변지역 4개구 13개 행정동		청계천 주변지역 4개구 13개 행정동	청계천 주변지역 4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울시(25개구)
4) 표본추출방법	지역/업종 규모를 고려한 비례 할당추출	지역/성/연령 규모를 반영한 비례할당추출	지역/업종 규모를 고려한 비례 할당추출	판단표본추출 (청계천로주변 1층 상가사업체)	지역/성/연령 규모를 반영한 비례할당추출
5) 표본오차	±3.1%(신뢰수준 95%)	±4.4%(신뢰수준 95%)	±3.1%(신뢰수준 95%)	-	±3.1%(신뢰수준 95%)
6) 조사방법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Face-to-face Personal Interview)		개별 면접조사	개별 면접조사	전화조사 (Telephone Interview)
7)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
8) 조사기간	2003년 12월 3일 ~ 12월 20일 (18일간)		2004년 5월 28일 ~ 6월 11일 (15일간)	2005년 1월 11일 ~ 15일 (6일간)	2005년 11월 24일 ~ 25일 (2일간)

2.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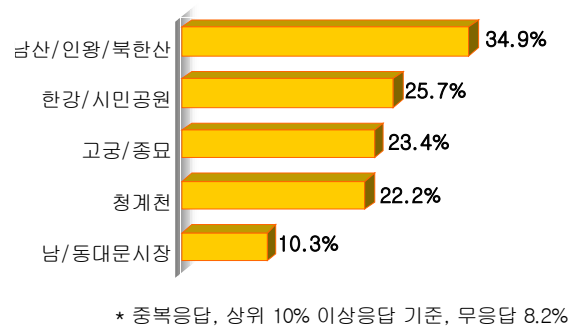
-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는 청계천 복원사업 종료 이후인 2005년 11월 경에 서울시민 1,000명에 대하여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제4차 패널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임.

- 설문조사 결과는 이전의 제1·2·3차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도 등 공통된 문항의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비교 제시함.
- 주요 조사내용은 서울의 대표 이미지, 청계천 이용행태 및 만족도,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인식, 청계천 복원 이후 인식변화 및 과제 등이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2) 청계천 이용 행태 및 만족도

○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 인식

-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남산/인왕산/북한산 등 서울의 대표적 산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한강/시민공원(25.7%), 고궁/종묘(23.4%), 청계천(22.2%), 남대문/동대문 시장(10.3%)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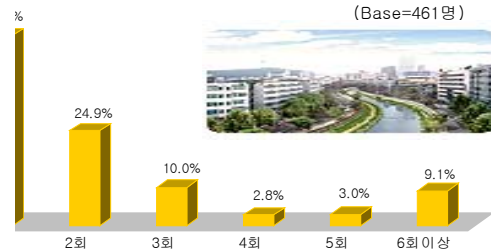
- 대표 상징공간으로 청계천을 응답한 222명을 대상으로 청계천 복구 이전의 상징공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강/시민공원 (27.0%), 남산/인왕산/북한산(23.9%), 고궁/종묘(15.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서울시민들은 새롭게 조성된 청계천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의 새로운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청계천 방문 경험

- 서울시민 10명 중 4명 이상(46.1%)이 지난 2005년 10월에 개방된 청계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참여경험은 50대 이상(54.7%), 강북 동부지역(50.8%), 자영업 종사자(50.2%),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 300~399만원(52.9%) 및 400만원 이상(51.6%) 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반면, '방문한 적 없다'는 의견은 53.9%로 나타나 방문 비경험자가 경험자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청계천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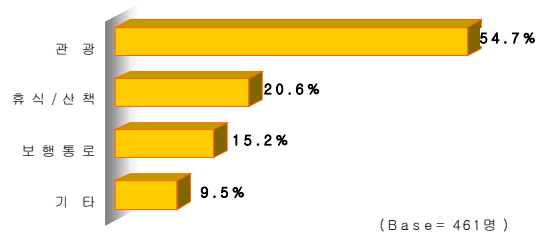
- 청계천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461명)에게 방문 빈도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 정도(50.1%)가 1회로 답하고 있음.
- 이어 2회 24.9%, 3회 10.0%이며, 특히 6회 이상 방문 경험 비율이 9.1%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1회 방문 응답은 여성(57.1%), 강남 서부 지역(58.3%), 주부(61.6%) 및 학생(61.5%)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청계천 방문횟수

○ 청계천 방문 목적

- 청계천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7%)이 '관광차원'에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청계천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반면, '휴식/산책'하기 위해서는 20.6%, '보행통로'로는 15.2%로 나타남.((그림 3) 참조).



[그림 3] 청계천 방문 목적

- '관광' 방문은 강남 서부지역(65.2%), 고학력자 및 고소득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산책' 방문은 강북 서부지역(30.2%) 및 강남 동부지역(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청계천 방문 시 인상 깊은 명소

- 청계천 방문 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터널분수가 1순위(15.8%) 및 종합순위(25.4%)¹⁾ 모두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함.
- 이어 옥류천(1순위 12.4%, 종합 20.8%), 광통교(1순위 11.7%, 종합 15.6%), 물(1순위 8.9%, 종합 9.5%) 등의 순서로 나타남.

1) 종합순위는 복수응답 결과임.

- 터널분수 선호는 응답 계층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남성(22.3%), 50대 이상(26.6%), 강북 서부지역(27.9%), 자영업 종사자(21.3%)는 옥류천을 가장 으뜸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조를 보임.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도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개선 상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00점 이상으로 나타나 복원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4.31점), 악취(4.32점), 바람길(4.30점)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개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청계천 인근지역인 종로구와 강북 서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과 강북 서부지역에서 “매우 개선”되었다는 절대 긍정 의견이 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
-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개선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과거 설문조사 자료와 비교한 결과,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후인 현재의 시점에서 개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사업체 대상 조사와 2003년도 지역주민 대상 조사에서는 50점 내외의 수준을 보였으나, 서울시민 조사에서는 80점대 내외의 높은 개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청계천 복원(2005년 10월) 이후 조사라는 점이 인식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표 2> 참조).

<표 2> 청계천 복원에 따른 환경 개선도 설문결과 비교

(단위: 점, 100점 환산 점수)

구 분	2003.12 사업체(n=1,000)	2004.6 사업체(n=1,000)	2005.1 사업체(n=509)	2003.12 지역주민(n=500)	2005.12 본조사 서울시민(n=1,000)
대기	48.4	40.6	55.6	49.1	81.1
수질	50.0	47.6	54.4	50.7	82.8
소음	43.4	35.1	52.0	44.1	77.0
악취	49.6	44.6	56.5	51.0	83.0
일조량	54.7	52.7	61.1	54.2	81.0

주: 2005년 12월 서울시민 조사의 경우 청계천 방문자(Base=461) 대상 응답 기준임.

○ 향후 청계천 방문 의향

- 향후 청계천 방문 의향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방문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향을 나타냄.

- 이러한 긍정적 의향은 사회 통계적 변수를 고려한 전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줌.
- 특히, 청계천을 방문하지 않은 계층에서도 향후 방문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청계천 복원에 대한 만족도

- 서울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에 대해 대부분(90.6%)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임. 이는 청계천이 역사유적을 복원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의 회복'이라는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만족도를 얻어낸 것으로 판단됨.
- 만족한다는 긍정적 시각은 50대 이상(94.5%), 강남 동부지역(96.9%), 저학력 및 저소득층 계층, 청계천 방문 경험자(9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만족 응답자의 만족 이유로는 '주변 환경이 좋아서', '물이 흐르는 모습이 좋아서' 등 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모습에 긍정적 이유를 찾았으며, 반면에 불만족 이유로는 '교통 불편', '인공적 인상' 등이 지적되었음(<표 3> 참조).

<표 3> 청계천 복원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만족하는 이유(N=906)	(%)	불만족하는 이유(N=68)	(%)
· 주변 환경이 좋아서	30.2	· 주변 교통이 불편해서	25.0
· 물이 흐르는 모습이 좋아서	23.8	· 너무 인공적이어서	25.0
·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생겨서	17.9	·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7.6
· 친환경적이어서	10.5	· 안전상의 이유로	10.3
· 공기가 좋아서	7.7	· 인도가 좁아져서	7.4
· 생태가 복원되어서	5.8	·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2.9
· 역사적 공간이어서	3.4	· 주변상권이 약화되어서	2.9

주: 상위 7순위 응답 기준임. 단, 무응답은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1.4%, 불만족 이유 질문에서 7.4%임.

3)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

- 서울시민의 대부분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사업취지에 맞게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잘 복원한 사업이라는 긍정적 평가(89.8%)를 내림.
- 반면,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비관적 견해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청계천 복원사업의 도심 환경개선 기여도

-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도심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설문한 결과 서울시민 응답자의 절대 다수(96.0%)가 긍정적 의견을 피력함.
- 특히 '매우 기여했다'는 절대 긍정 응답이 35.1%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계층에서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표 4> 참조).

<표 4> 청계천 복원 평가와 환경개선 기여도 교차분석결과

복원사업 평가 \ 환경개선 기여도	기여했다	기여하지 못했다
	전 체	96.0%
잘 복원된 사업(898명)	99.0%	1.0%
잘 복원되지 못한 사업(102명)	69.6%	30.4%

○ 청계천 복원 이후 서울 도심지역 이미지 개선

- 청계천 복원 후 서울 도심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정도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이상(92.9%)이 이미지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감계층은 50대 이상(97.2%), 강남 동부지역(97.9%), 저학력자, 청계천 방문 경험자(95.2%) 및 복원사업 긍정 평가자(9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청계천 인근 지역 환경개선

- 인근지역의 환경개선 정도에 대해선 서울시민의 83.8%가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임.
-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견해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2.3%임.
- 긍정적 의견은 50대 이상(91.3%), 저학력자 및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응답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44.1%)을 보임.

○ 청계천 역사·문화 복원 정도

- 청계천 복원 이후 역사·문화의 복원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2%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도심지역 이미지 개선 정도나 인근지역 환경 개선도의 긍정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진 결과임.
- 반면, 복원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은 21.8%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4.0% 수준임.

○ 청계천 복원사업의 가장 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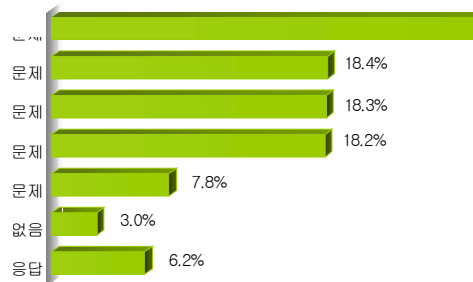
- 서울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의 가장 큰 성과로서 '생태환경 회복'(48.7%)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서 '서울의 새로운 쉼터 마련'(28.1%), '역사문화 공간 확보'(8.0%), '관광 등 경제 활성화'(6.9%), '서울시 균형발전'(6.3%)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생태환경 회복' 성과는 50대 이상(57.8%), 강남 동부지역(64.9%), 중졸 이하(55.4%), 청계천 방문자(5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강북권 활성화' 성과는 강북 거주 주민들(강북 서부지역 5.1%, 강북 동부지역 9.1%)에서도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표 5>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과

구 분		생태환경 회복(%)	새로운 쉼터마련(%)	역사문화 공간회복(%)	경제 활성화(%)	강북권 활성화(%)
전 체		48.7	28.1	8.0	6.9	6.3
연령별	20대	44.7	36.7	5.1	6.8	4.6
	30대	42.6	32.7	8.4	6.8	7.2
	40대	48.0	26.5	11.2	5.8	6.3
	50대 이상	57.8	18.3	7.6	8.0	6.9
권역별	강북 서부	46.6	31.3	6.8	6.3	5.1
	강북 동부	46.2	28.9	6.7	6.7	9.1
	강남 서부	42.2	30.9	9.6	8.6	7.0
	강남 동부	64.9	19.6	8.8	5.2	1.5

○ 청계천 복원 이후 발생문제

- 청계천 복원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서울시민들은 '교통문제'(28.1%)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안전문제'(18.4%), '환경문제'(18.3%), '편의시설 부족문제'(18.2%) 등을 지적하였음.
- 반면, 청계천 방문자들(461명)은 '교통문제'(26.9%)와 '편의시설 부족문제'(25.2%)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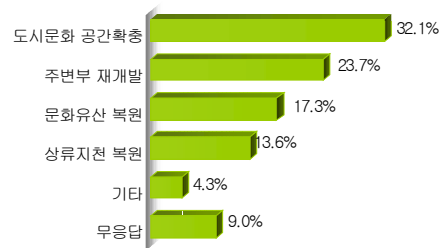


[그림 4] 청계천 복원 이후 발생가능 문제

- 한편, 지난 2005년 1월 사업체 상인 조사(509명)에서는 '교통문제'(78.2%)가 압도적으로 높게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환경문제'(9.6%), '사람사이 갈등'(6.7%)의 순이었음.

○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

-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으로 시민들은 '도시 문화공간 확충'(32.1%)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변부 재개발'(23.7%), '문화유산 복원'(17.3%), '상류지천 복원'(13.6%)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청계천 복원 이후 최우선 개발사업

- 특히, 강북 서부지역과 강북 동부지역의 경우 '도시문화 공간 확충' 의견과 '주변부 재개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문화공간 확충과 맞물린 주변부 재개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청계천 주변지역의 희망 문화시설

- 청계천 주변지역에 조성되어야 할 문화시설로 '전통공연장'(25.1%), '테마파크'(21.4%), '공연/전시장'(19.2%)이 높게 선호되고 있음.
- 특히, 공연장 희망 의견이 44.3% (25.1% + 19.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청계천 방문객이 지켜야 할 사항

- 청계천 복원 이후 청계천 방문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4%)이 '환경오염 방지'를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천보존 노력'(19.7%), '청계천 규제사항 준수'(18.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특히 '환경오염 방지' 의견은 여성(55.6%), 50대 이상(57.8%), 강남 서부지역(54.2%) 및 강남 동부지역(56.7%), 중졸 이하(59.9%), 주부(56.5%) 및 학생(56.3%), 월 소득 300~399만원 계층(57.0%), 청계천 복원사업 부정 평가자(5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3. 청계천 복원사업의 향후과제

-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청계천 장소마케팅 전략의 개발과 활용
 - 서울시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복원된 청계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청계천에 대한 적극적 호응 정도를 알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청계천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어, 복원 이후 청계천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혹은 도시 관광마케팅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청계천 복원 이후 지속적인 도심 환경개선 노력 필요
 -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의 환경상태가 아주 개선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 개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로 생태환경 회복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어 서울의 새로운 쉼터 마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도심 내 휴식공간과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을 잘 복원한 사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절대 다수(96.0%)가 청계천 복원사업이 수질, 악취, 바람길 개선 등 서울시 도심 환경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볼 때 시민들은 도심 환경개선에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시민수요 맞춤형 청계천 유지 및 관리전략의 마련 필요
 - 청계천 복원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교통문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 문제, 환경문제, 편의시설 부족문제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음.
 - 또한 향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으로 도시 문화공간 확충을 꼽았고, 이어 주변부 재개발, 문화유산 복원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한편으로는 청계천 주변지역에 설치되길 희망하는 문화시설로는 전통공연장, 테마파크, 공연/전시장 등이 높게 선호되었으며, 청계천의 역사·문화 복원 측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높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음.
 - 이와 같이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감안하여 맞춤형 중·장기 청계천 유지 및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민과 함께하는 청계천 가꾸기 프로그램의 개발

- 시민들은 청계천이 문화자원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하천보전 노력, 청계천 규제사항 준수 등이 높게 지적되어 청계천 유지관리에 시민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청계천 보존과 유지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운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155
wookim@sdi.re.kr